

# 시놉시스

높이 치솟은 세레니아의 스카이 스크래퍼 뒤로 해가 넘어가고 있었다. 그 날의 해는 행성 위로 불시착하는 운석처럼 유독 붉게 타오르며 떨어졌다.

여느 국가가 그랬듯 실바니아는 한 세기가 새로이 시작한다는 기쁨과 설렘을 맞이할 준비 중이었다. 어딜 가나 들리는 축포와 채광에 빛나 반짝이는 꽃들, 각종 고기의 고소한 기름 냄새는 국민들의 흥분감을 고조시키기에 충분했다. 허나 그런 설렘도 잠시, 모든 사건의 시작은 세레니아의 대광장을 초토화시킬 정도로 압도적인 크기의 포탈이 열리며 시작된다.

거대한 포탈은 놀라운 속도로 제 크기를 넓혀갔으며 그 속에서 헬민스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강렬한 파괴력으로 세레니아를 휩쓸며 무자비하게 나아갔다. 축제 분위기이던 중심지는

금세 아수라장이 되었다. 즉각 군사동원령이 떨어졌고 정부는 안보위기 매뉴얼대로 침착하게

대응하였으나 정보력이 거의 무에 준하는 헬민스였기에 당연히 그들을 상대하기란 역부족이었다.

점차 힘찬 함성 대신 무기와 두꺼운 살갗이 부딪히는 소리가 광장을 메우기 시작했고 포탈에서

새어 나온 열기가 자욱했다.

기나긴 시간 동안 죽은 듯이 잠들었던 소년. 소년은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낮선 소녀의 품에서 깨어난다.

낮선 소녀는 자신을 과거 중앙 헌터부의 수장이었던 모비어스의 딸이라 소개하며 차근차근 현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갑자기 원인불명의 거대한 포탈이 등장했고, 우리는 그를 게이트라 칭한다. 실바니아 정부는 당장의 대비책을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하고 있다. 게이트로부터

쏟아져 나온 헬민스들을 막기 위해 용병들이 파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능한 연구자들은 헬민스의 성격과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에 분주하다.

설명을 이어 나가던 소녀는 고개를

돌려 한 노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이는 정부가 헬민스의 조직을 모아오는 자들에게 보상을

약속하며 생긴 새로운 상인이다. 소년은 극심한 두통에 표정을 찡그렸다. 소녀의 말이 당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거니와 그는 그저 유일한 혈육인 아버지의 행방이 궁금할 뿐이었다.

네 아버지는 나에게 너를 지키라는 말만 남기고 게이트 안을 수색하기 위해 떠나셨어. 그래서 게이트는 잠시 닫혀 있는 상황이야. 그때 소년의 귓가로 아버지의 음성이 미세하게 스쳤다. 분별할 수 없는 외계의 언어처럼 들렸지만 그럼에도 소년은 언어를 느낄 수 있었다. 소년은 나지막이 되새겼다.

모두가 하나로 수렴되는 것...? 동시에 푸른 피가 흐르는 혈관이 소년의 눈에 들어왔다.

신비로운 피가 흐르는 새로운 존재로의 탄생이었다. 팔목을 바라보는 소녀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모든 게 예견된 일이었다는 듯한 반응이었다.